중동서 꽃피는 불교, 튀르키예 1세대 불자들

80년대 선불교 전파부터 시작
재가신자 중심 불교승가 구성
명상 중심 활동, 단기 안거 등
"문화에 맞게 각색 · 전파 활동"

박영빈 객원기자


단기 안거를 마친 튀르키예 불교승가 회원들. 사진출처=트리싸이클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튀르키예.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온 튀르키예가 불교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해외 불교전문 매체 '트리사이클(Tricycle)'은 튀르키예의 1세대 불교도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문화가 혼합된 튀르키예에 본격적으로 불교가 알려진 것은 80년대부터다. 저명한 작가이자 번역가 귄괴렌(Gungoren)이 선불교에 대한 책을 소개하고 요가, 태극권과 같은 동아시아 정신수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귄괴렌의 제자이자 현재 튀르키예 불교승가를 이끄는 켐 센(Cam Sen)은 "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서 겪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튀르키예에 불교는 새로운 사상이기에 앞장설 이가 필요하다"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튀르키예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센이 이끄는 튀르키예 불교승가는 재가신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3년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친다. 좌선수행이 중심인 이 단체는 팔리어 경전의 영어 번역본을 터키어로 번역한 초기경전으로 불교를 공부한다. 센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상세히 접근한다"며 "그래서 '깨닫는다' 대신 '마음을 정화한다'는 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외부 종교에 배타적이고 세속주의 정책이 엄격한 튀르키예 문화 특성상 현재 튀르키예 불교승가는 공식적인 센터나 사찰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 안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안거의 강도와 시간이 달라진다.

이스탄불에서 불교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센기즈 외즈칸(Cengiz Özcan) 역시 튀르키예 불교는 재가신자들을 중심으로 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년 전 이스탄불과 불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튀르키예에 명상센터를 건립했다. 당시 명상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과 한두 명에 그쳤다"고 회상했다. 또한 "튀르키예 사람들은 종교 외에도 일상에서 이슬람의 많은 측면을 마주하면서 불교를 또 다른 종교로 간주하고 공개적인 불자 되기를 꺼린다"며 "불교를 직접 내세우기 보다는 명상에 더욱 집중하는 방식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불자라고 소개한 튀르키예 남성은 "우리는 1세대 튀르키예 불교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튀르키예에 불교를 직접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맞게 부처님 가르침을 각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이나 승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승가가 꾸려지고 불법을 배우며 많은 이들이 직접 소통하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자부했다.

泰 교육봉사 위장 타종교 선교행위 '물의'

학인스님 대상 영어 교육서
수업 폐강, 태국불교청 보고


강사의 지도에 따라 찬양 자세를 취하는 학인스님들. 사진출처=카오속뉴스

태국의 한 사찰에서 진행한 무료 원어민 영어 강의가 사실은 타종교 선교를 위한 자리였음이 밝혀져 논란이다. 지난 9월 23일 태국 '카오속뉴스(KhaosokNews)'가 공개한 한 사진에서는 스님들이 두 손을 올리며 찬양하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카오속뉴스는 사진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태국 앙통 주, 포통지구의 왓 타클롱 사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포통지구 불교지도자 프라 마하토놋 칸타포 스님의 공개 비판으로 알려졌다. 마하토놋 스님은 "왓 타클롱 사원이 운영하는 프라 파리얏티담 학교의 일반교육과정에서 타종교의 선교행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영어로 이야기하고 여성이 태국어로 통역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찰의 학인스님들로 구성된 수강생들은 두 사람의 지도에 따라 두 손을 높이 들어 영어로 예수를 찬양하고 있었다.

마하토놋 스님은 "이 사건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스님들의 순수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겉보기에는 학생과 영어초보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돕는 무료 영어교육처럼 보여 학인스님들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프라 팔랏수라웃 스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사원 내 학교에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사원은 학생과 학인스님들이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 제안을 수락하고 강좌를 개설했다.

해당 수업을 들은 한 참가자는 "강사라고 자칭하는 외국인과 통역사가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학인스님들에게 영어 회화 연습이라며 영어 문장들을 따라 읽게 했다"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은 의심 없이 따라 읽었고 그것이 기독교 찬양임은 사건이 일어난 후 알았다"고 증언했다. 수업시간에는 기독교 선교책자도 배포됐다. 참가자는 "위장강사들은 책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언제든 원어민 강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왓 타클롱 사원은 강좌를 즉시 폐강하고 강사진에게 강의로 위장한 선교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건에 관련된 기관과 태국불교청에 이를 보고했다.

마하토놋 스님은 "이번 사건은 전대미문으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외부 강사와 교육기관에 대해 불교계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왓 타클롯 사원은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절이 라면 맛집? 日사찰 채식 라면 인기

불교경전 관리비 위해 판매
채식 라면으로 '핫플' 등극


호조인 사원에서 판매 중인 채식 라면. 사진출처=SCMP

350년 된 일본 불교사찰이 '라면 맛집'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다.

홍콩의 영자매체 'SCMP(South China Morning Post)'는 지난 9월 27일 교토현 동남쪽 호조인이 채식 라면 판매에 나섰음을 알렸다. 1669년 창건된 이 사찰은 최근 6만여 개 경판의 관리·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호조인의 경판은 일본 고전문헌과 불교경전을 기록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사찰에는 약 6만 여 개의 경판이 보관돼 있고, 그 중 4만1000여개가 일본 정부에 의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됐다. 경판들은 일본불교의 역사와 철학, 문화 이해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판들은 60년 넘은 보관실에 쌓여있고, 냉난방 시스템이 없어 곰팡이와 벌레 등 병충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판 보존 및 유지 비용은 최소 5억엔(한화 약 46억원)부터 최대 10억엔(한화 약 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조인의 주지스님은 '요미우리TV(YomiuriTV)'와의 인터뷰에서 "경판의 유지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채단 라면 판매와 같은 창의적 방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문화유산 소유자는 관리 책임이 있다"며 "사찰은 이 고전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은 앞선 2022년 10월부터 매주 목·금·토요일 채식 라면을 판매중이다. 가격은 600엔(한화 약 5500원)으로, 매일 30인분 한정 판매된다. 맛이 훌륭해 조기 소진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토시 주민 후쿠코(79) 씨는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라면은 처음이다"고 극찬했다.

주지스님은 "채식 라면 판매가 사찰 운영과 경판 보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불교고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기쁨을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내슈빌 사원 보시금 강도당해

스님 폭행, 보시금 강탈
현지서 강도 5명 수배중


사원 강도의 용의차량 모습. 사진출처=폭스28

미국 내슈빌(Nashville) 지역 경찰이 스님을 폭행하고 내슈빌 사원을 강탈한 강도 5명을 수색중이다.

미국 현지매체 '폭스28(FOX28)'은 10월 1일 보도를 통해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 주의 왓 라오 불교사원에 5명의 강도가 침입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원에서 수행하는 놈 렝사바스 스님은 당일 오전 9시 침입한 강도들이 사원의 보시금을 훔쳤고 스님은 그들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현지경찰은 테네시 주 놀란스빌의 배틀 리지 레인에 버려진 용의 차량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5명의 강도에게 현상금이 걸려 수배중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